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월



2021. 가을호

162

 민주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1년 가을호 통권 162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문정수 | 편집인 김초기
발행일 2021년 10월 12일 | 간행 기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비00013
표지 재호 신명배 | 편집장 김재선 | 디자인 중건 051-496-8994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술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연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떠내면서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아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체한 후 그 음식을 꺼리게 되거나 교통사고를 경험한 후 운전하기 무서워지는 것 등이 트라우마입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넘어 집단 전체가 큰 사건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son, 1976)은 '집단트라우마(Collective Trauma)'를 처음 개념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은 고통을 넘어 집단 차원의 피해, 집단 차원의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외상적 사건 자체의 집단적 경험과 의미화 과정을 포함하며, 이전과 이후 세대를 통해 전승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은 우리 공동체에 집단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영향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방 후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국가폭력은 집단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공동체가 집단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억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가을호에서는 공동체와 집단트라우마, 트라우마 치유를 주제로 역사적 사건은 물론 일상에서 겪는 사건과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방법도 찾고자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함께하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며 2021년 가을호를 펴냅니다. **1**

목 차

- 04 온누리햇살 부마민주항쟁과 트라우마 _홍순권
- 08 마루누리 국가폭력의 아픔을 돌볼 때 얻는 선한 미래 _정찬영
4·3트라우마센터,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을 열다 _오승국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_문감수
- 16 우리 안의 혐오와 차별 우리 안의 장애 차별과 장애인 탈시설에 대하여 _최영아
그건 '논란'이 아니라 '성차별'입니다
- 2020도쿄올림픽을 통해 본 성차별 _허주영
- 22 4대항쟁 부마민주항쟁 제42주년 기념행사
제30회 민주시민상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시민영상제
보이지 않는 그물로 연결된 못 생명들 -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1 - #코로나그림> 정재은
- 29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의 힘: 체계적인 기록 관리의 필요성 _박계민
- 32 민주공원 민주공원에서 보낸 여름 방학
- 34 모두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의치다 미안마 in 부산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민의 자부심' _진성범
- 38 민주사랑방
- 40 민주일림방



▲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군 부산 진주 고 정장삼

부마민주항쟁과 트라우마

홍순권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경주·포항 지진, 강원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강조되었다. 2018년 4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서울)가 문을 열었다. 이후 강원권트라우마센터(춘천), 영남권트라우마센터(부산), 충청권트라우마센터(공주), 호남권트라우마센터(나주)가 문을 열었고 국가적 재난이나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난사고 이외에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다. 이에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설립, 제주에서도 2020년 4·3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었다.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 중 많은 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도 진상규명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부산에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면 국가폭력 피해자는 물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트

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햇살에서 부마민주항쟁이 남긴 트라우마를 살펴보고 이어 마루누리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 4·3트라우마센터의 운영 현황과 지역 내 역할, 일상 속 위기 상황 대처 방안을 전한다. - 편집자 주



▲ 국제신문사의 부산MBC 청문을 강타하는 계엄군. 김택돈

해방 이후 민족 분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전쟁과 독재정치를 겪으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한국전쟁을 전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하여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전쟁 이후에도 독재정권에 반대하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던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특히 5·16군사쿠데타 발생 이후 군사정권의 독재정치하에서 국가권력의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의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실시해 왔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도 그러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의 공식기구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항쟁 과정에서 사망, 구금, 고문, 학사 징계, 해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연행이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고문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그 상이(傷害)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물론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까지 포함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일 이상 구금된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2021년 8월 31일 현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위

위원회의 심의로 보상이 결정된 상이 관련자는 59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상이에 대한 보상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피해가 인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에는 트라우마 상이 피해자 6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17명의 트라우마 상이 건이 심의 진행 중이다. 트라우마 등의 정신질환이 인정된 피해자 대부분은 시위 도중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구금되어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압군경이나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인한 고통이 이후 트라우마로 발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트라우마 상이자들은 신체적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인해 실직 등 피해를 입어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대인관계나 가정생활에서도 이혼,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전문가라 하더라도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당한 정신적 고통 여부 및 그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매우 주관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개인의 트라우마를 측정하는 일종의 도구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죽음의 목격,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인 폭력 등을 경험했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고문, 가혹행위, 진압과정의 무자비한 폭력 등으로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자백의 강요에 의해 타인을 검거케 한 경우 죄책감 등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통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백이 없는 이상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청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에 기술된 동료 수감자나 가족이나 친지들의 사후적 관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




▲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부마민주항쟁 시위 관련자와 가족들. 김택은

게 된다. 또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트라우마 상이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만큼 이것만으로는 신청자의 발병 시점이나 증상의 지속 기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 같은 이유로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이 부마민주항쟁과 내용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마민주항쟁 관련 보상법은 노동력 상실률이라는 기준에 따라 장애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자들의 주장을 참고하면서 이외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판정 지침에 따라 단계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사건 관련 여부를 판정하고, 그들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등급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지침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자의 사건 관련 여부 및 트라우마 판정, 정확한 등급 부여 등은 한편으로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절차상 공정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의 트라우마 상이에 대한 보상 심의는 처음 길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로는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미국 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검사 방법 등을 차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방식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물질적 보상과 외적인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거나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즉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서는 2012년 국내 최초의 국가폭력 치유기관으로 문을 연 광주트라우마센터가 그 역할 담당하고 있다. 부산과 영남 일원에도 부마민주항쟁과 기타 민주화운동 사건 관련자로서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 운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은 이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심각한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기존 연구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참여로 유발된 트라우마는 만성화가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완화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는 생활스트레스 관리 또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위원회에 피해 신청을 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경우에도 누군가가 늘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나 잦은 불안감과 악몽으로 시달리다가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발전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트라우마는 다른 질병과 같이 한 번 발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병할 수도 있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치유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부산에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치유 대상이 비단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트라우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의 피해자일수록 그 피해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트라우마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학화시키는 위험요인은 물론 피해를 완화하거나 보호하는 요인 등 트라우마 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또한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폭력의 아픔을 돌볼 때 얻는 선한 미래

정한영 | 세미래병원장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머리 프로그램의 사진, 트라우마 상담, 치료, 회복 프로그램 참여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아우슈비츠에도, 제주에도, 광주에도, 부산에도 드리웠던 국가 폭력 트라우마 기억은 육감적인 차원에서부터 감정적, 인지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스스로 날카롭게 묻게 한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인간에게 집단트라우마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뿜어나오는 선한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 광주5·18이나 세월호 참사, 9·11테러와 같은 집단트라우마 앞에서 일깨워졌던 생존자 죄책감이나 위험 앞에서도 이웃을 도우려는 선한 행동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한 에너지와 함께, 트라우마가 던지는 우리 현실에 대한 실존적 자각은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이나 재심이나 배상, 기념관과 같은 사회적,

법적 문제, 기념사업과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가져온 반면, 심리적 외상에는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피해당사자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고통의 진실을 마주하고 이것을 치유하는 노력 속에서 공감하고 위로가 일어날 때, 공동체는 비로소 트라우마의 고통이 주는 다층적 깨달음과 의미를 온전히 배우고 기념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일반 시민으로서, 목격자로서, 동지로서, 가족으로서, 피해당사자로서 각각 아픔의 층위가 있다. 고통을 받은 맥락에 따라 아픔도 다양할 것이다. 유족, 부상자, 고문 및 투옥, 감시 통제나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과 고립, 차별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지속적인 두려움, 죄책감, 모범감, 무력감, 수치심, 학몽, 플래시백, 트라우마 기억과 같은 고통을 낳는다. 고립감, 자극 박탈, 통제 결핍, 울분, 우울, 분노, 수치심, 편집적 경향, 중독, 자해 및 자살, 트라우마 재정험과 과각성, 회피행동 등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세대 간 전이를 낳아 후대 가족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피해당사자의 심리적 외상을 돌보지 않고서 이야기하는 민주항쟁의 기념 계승과 인권, 민주주의는 허망한 자가당착으로 보인다.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2012년 중반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자문의사를 해오면서, 2013년부터 증언치유 마이데이를 진행해왔다. 5·18 생존자와 가족들, 민주화 과정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동지들과 지지적인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국가폭력 경험과 생애의 경험을 증언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증언은 구더기가 꿈틀대던 스무살 자식의 주검을 끌어안았던 어머니의 절규, 총탄이나 곤봉으로 얼굴이 알아볼 수 없게 뭉개지고, 죽음으로 역사에 살아남고자 결의했던 도청 최후항쟁 당시 시체 더미에서 생포되어 뒤로 손이 묶인 채 굴비 꾸러미처럼 끌려가거나, 상무대에서 '빨갱이'가 되어 갖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군사 재판으로 중형을 받고 투옥되어 두려움에 휩싸인 날들, 출소 후에도 긴 세월 감시와 취업 제한, 차별을 받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던 아들과 이들의 부모, 형제, 자식, 친지, 이웃, 친구들의 생애사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수십 년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들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들으려 한들 겪은 것을 말하기가 어려웠던' 아픔들이 말해졌고 활자화되었다. 국가폭력의 아픔들은 폭력 당시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난 수십 년간 증언자들의 생애를 관통하며 지속되고 있었다. 이 증언기록들은 3권의 기록집으로 엮여졌다. 각 편이 출간될 때마다, 증언자들을 모시고 소감을 듣는 출판기념회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있었다.



증언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 기록집

가해자 측에 가담한 이가 이러한 증언의 자리에 나선다면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통합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명령에 따라 가해자 편에서 섰던 분들도 기본적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이다. 부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죄책감이나 자아상의 왜곡으로 인한 괴로움,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겪은 트라우마 기억 등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 이들의 증언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용기 있는 행위이면서, 자신에게도 치유적인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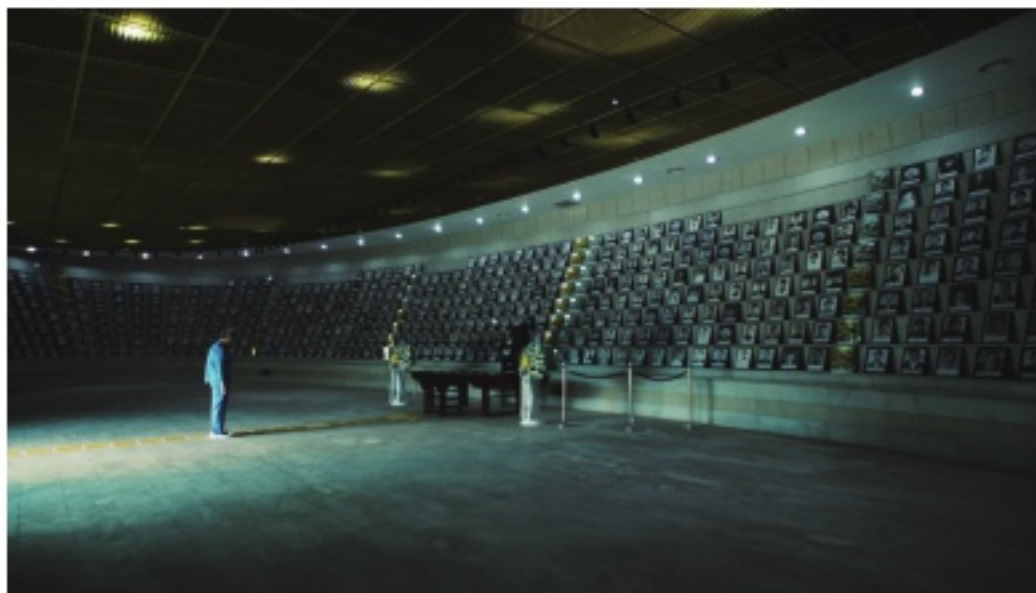
'킬링 필드가 일어난 캄보디아에서는 서로 접촉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인터뷰 영

상을 수차례 교환해서 관람하는 과정을 거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NGO나 지역 어른의 증제로 직접 만나 서로 사죄와 화해를 나눈 사례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가해자의 증언을 호소하기 위해 작사, 작곡, 제작을 맡아 5·18 가해자 헌정곡 <우리 안의 아이에게>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유튜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18 가해자 헌정곡
<우리 안의 아이에게>

나는 지난 10여 년간 광주트라우마센터 내담자들 중 많은 분이 점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트라우마 재경험으로 위축된 모습을 떨치고 희생자에서 의미 있는 적극적인 행위자와 참여자로 변모해가는 것을 보았다. 합창단원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현장에서 노래하고, 역사 교육프로그램의 강연자로, 유엔 인권의 날의 증인으로, 국회로, 광장으로 용기 있게 나서 화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아왔다. 이들에게는 개별적 치료나 상담도 도움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집단프로그램이나 증언, 공동체 활동과 연대의 힘 또한 컸다.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가장 따뜻하게 맞아 위로했으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도 아찔없는 위로와 연대를 나누었다. 작은 치유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여러 활동과 상호작용이 늘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리더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치유와 연대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일이 많아지고, 왜곡되고 분열된 사회적 담론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18 가해자 헌정곡 <우리 안의 아이에게> 뮤직비디오 중 한 장면

말하지 못했던 개개인의 국가폭력 고통이 의미 있는 '공동의 기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고 기념할 공동의 기억에 생생한 구체성이 더해졌다.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료 경험은 트라우마 치료 회복 능력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의 자산이 된다. 부산에도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되어 지역사회의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를 도울 뿐 아니라 전국의 치유 공동체들과 연대하도록 연결하는 호젓한 날들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그것은 부산지역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 

4·3트라우마센터,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을 열다

오승국 |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4·3생존희생자와 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 국가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육체적 치유를 수행할 4·3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020년 5월, 오랜 기다림 끝에 개소하여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센터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육체적 치유를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적 치유 모델을 설정하여 치열한 치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다음 세 가지 핵심부분에 초점을 맞춰 운영의 목표를 실행해나갈 것이다. 첫째는 제주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치유 및 제주평화공동체를 위한 역사·문화·사회적 치유를 중심으로 국가폭력과 국가사업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에 우선 다가갈 것이다. 두번째는 4·3트라우마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3단체, 정신건강전문가 등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는 트라우마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과 학술연구 등을 통해 트라우마 예방 및 국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

제주사회에서 4·3트라우마와 관련한 논의는 2003년 제주4·3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그 후 강창일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의 일환인 광역정신보건센터로 구체화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2주년 4·3추념사에서 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70주년 추념사에서도 4·3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선거 공간에서 4·3트라우마센터 기능을 포함한 4·3복합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3트라우마센터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법제화될 때까지 광주와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며,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매칭 예산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운영한다.

4·3희생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1만 7천여 명에 달하며, 4·3생존희생자는 39.1%, 유족의 11.1%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PTSD) 고위험군으로서 시급하게 치유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일차적으로 시급한 4·3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후유장애인 84명, 수형인 33명, 1세대 유족 13,297명, 1세대 며느리 2,881명, 강정마을 주민 등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1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 전역에서 시행했던 4·3의 무차별 토벌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는 7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긴 세월 동안의 역사적 상처는 다음 세대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2세대까지 포함될 수 있다.

제주4·3 - 눈물로 새겨진 불멸의 역사

아름다운 제주산야와 해변을 붉게 물들였던 참혹한 양민학살의 역사. 오랜 세월 동안 방설조차 금기시되었던 한과 눈물의 제주4·3

은 한라의 아름다운 풍광 뒤에 숨어 허공을 떠돌고 있다. 72년 전, 우리나라의 최남단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는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중산간 마을 등 수많은 가호가 불에 타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했다. 당시 27만의 인구 중에서 2만 5천여 명의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130여 개의 마을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인구 10%가 정부 공권력에 희생되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제주 4·3은 제주도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고,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4·3항쟁으로 인적, 물적 피해 및 제주 공동체 파괴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만큼 제주도민의 고통은 지난 20세기를 관통하며 제주도민과 제주사회에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고, 이어서 평화의 섬 선포, 4·3 희생자와 유족 결정, 4·3평화공원과 기념관 조성, 유해 발굴, 4·3평화재단 설립, 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소외와 침탈로 얼룩졌던 제주섬의 고통의 역사가堂堂히 국가로부터 인정된 진실의 역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위로와 치유의 인식처 - 시스템 치유 프로그램 운영

4·3트라우마 센터는 개소 후 지금까지 개인·가족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 치유교육, 다양한 예술치유 프로그램(미술, 문학, 음악, 원예, 명상)과 숲치유 및 4·3유적지 기행을 연계한 야외치유 프로그램, 물리·도수치료, 신체 운동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어렵게 느껴졌던 강정마을 주민치유에도 다가서기 시작했다. 마을자치회 등 자생단체와의 신뢰구축을 통해, 강정마을 부인회, 노인회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치유, 4·3유적지 기행, 치유의 밥상, 숲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간, 월간 단위의 정형적 치유 프로그램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요일마다 문학치유, 음악치유, 원예치유, 명상치유, 운동치유, 4·3이야기마당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심리상담과 물리, 도수치료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읍·면·동·리 지역별, 분야별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방문치유도 운영했다.

이러한 4·3트라우마센터의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은 인간의 몸에 내재된 완벽한 평형, 혹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균형이 무너졌을 때 다시 균형을 잡도록 하는 심신치유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건강해지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병에 걸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다시 찾았을 때 병을 이겨낼 수 있다. 4·3트라우마 센터의 심리상담과 독특한 치유 프로그램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내재한 자율신경이 완벽한 균형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역과 국제사회의 교류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역사·문화·사회적 치유에 관심을 주어 따뜻한 평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센터는 이미 800여 명의 이용등록과 누적이용 인원 2만 3천 명을 기록하며 열정이 가득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내소자들에게는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형 트라우마센터의 전형을 세워나가고 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문갑수 | 부산생명의전화 상담실장

사회적 위기와 재난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심리적·정서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대단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돌보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살펴나간다면, 코로나 같은 대재앙에도 우울과 불안으로,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우울함에서 분노, 불안을 넘어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까지 와 있으며, 코로나블루를 넘어 레드, 블랙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산생명의전화로 전화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고독 등의 호소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상담전화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초에 열린 '자살예방학술회'에서는 20~30대 여성의 자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도 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재감, 소속감, 정체감, 주도성, 자율성의 흔들림과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게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가 37.8명이라는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아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길지 않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까요?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스스로를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소중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약간의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세상에 유일한 나라는 존재는 이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자존감은 바로 이런 소중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 '자존감'은 몸으로 비유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체력과도 같습니다. 살다보면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자존감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면 언젠가는 가까운 미래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열심히 해 보는 거야~ 그래! 나는 나를 믿어!" 이와 같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해 낼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들.

내 주변도 가끔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동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그들도 나와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힘든 상황을 견어가고 있는 내 소중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소중한 이가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을 혼자 몽롱 감추며, 혼자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혼자 애타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주변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소중한 이는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죽는다." 이 말은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나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접히 찾고 있다는 것이 **정설(定說)**입니다. (자살자의 이중심리: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삶과 죽음을 50:50으로 생각함) 결코 죽고 싶지 않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으려 나가다가 추워서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 순간만 넘기면 씩씩하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어설픈 충고를 거두고 소중한 이의 말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구나~",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들어줄게~",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단지 이 말이면 내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쭉~ 한번 둘러**

보십시오, 어떤가요? 모두 편안해 보이나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시고, 듣고 싶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내가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문제로,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개별화되어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몰랐거나 혹 외면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잘 돌보고, 주변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파편화**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들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귀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많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산 생명전화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전문적인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울하고 화가 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받는 것은 옛날처럼 흔하지 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도 아니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꼭~ 실천하여야 할 분명하고, 정당한 행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란

긴급/위기대상자 응급 출동	지역 자원 (전문기관들)	연락처	설명
경찰112 (긴급출동 전담) 소방119 (신체 손상)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 구군	1577-0199 1393 (24시간)	정신건강, 정서적 심리적 불안이 있을 때 1393(자살심리에 대한 전문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가족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이혼/부도/자녀 자녀양육, 가족보호, 다문화가정 등에 관한 불행, 양육, 가족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24시간)	전문적인 청소년상담 진료 진학, 학교폭력, 가정폭력, 거울, 자해/자살
	생명의전화	1588-9191 (24시간)	자살심리 대상자 위기개입상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청소년 자해/자살 위기개입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지역 병원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변경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병원을 다니시길 말고, 맞는 병원을 찾으십시오."

우리 안의 장애 차별과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하여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원

‘장애 자녀와 동반자살 시도’ 몇 년 전까지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가 1년에 1~2번 세간의 관심을 받은 했습니다. 장애 자녀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자살’이라고 명명된 용어에도 기겁했지만 그런 뉴스의 댓글은 더 놀라웠습니다. ‘안타깝고, 슬프다’는 의견에 공감에 제일 많았지만 그 다음은 ‘부모의 선택이 이해가간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가지는 것이 이렇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의 뇌리를 파고들곤 했습니다.

범죄 뉴스를 보도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경우에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노모의 지적장애 아들 살해’, ‘정신질환을 가진 딸 살해’ 등 사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인을 이해한다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죄다’, ‘부모마음 백번천번 이해함’, ‘그 누가 저분께 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댓글들이 공감 순위에 올려집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다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나와 장애 동료들이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던 것이 아

닌가하는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댓글들에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마저도 낮추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이라는 슬로건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의 혐오와 차별이라는 주제로 글을 의뢰받고 수십 번을 하게 된 생각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예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이 어렸던 수십 년 전은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다는 사실조차 외부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확보를 위한 부산시청 앞 결의대회





동문장애인과 장애인 동료상담 마흔두리
장애인 특설교동수단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던 사회적 분위기였고, 저와 제 가족도 장애로 인하여 불편하고 괴로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만큼...

제게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발시설과 관련한 논쟁도 위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정부가 지난 8월 장애인 발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장애인을 앞으로 20년에 걸쳐 지역사회로 자립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의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조금씩 진행되어온 발시설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모으고 향후의 방향을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시설을 주장하고 실천해온 활동가들은 로드맵 자체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자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부분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등 발시설 정책에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로드맵의 부족한 점이기도 하고, 이후 계속 보완해야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로드맵에 대한 평가를 뒤로 하고, 이


로드맵에 대하여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일부 부모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로 평균 19년을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중 28%는 무연고자이고, 83%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거주시설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거주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많은 거주시설 장애인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주시설의 삶이 아니라 발시설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수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3%는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발시설 이후의 생활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이라면 이 수치는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부모들은 극렬하게 발시설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자립을 한 후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 다시 부모가,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평균적인 삶(본인의 뜻이 아닌 상태로 시설에 입소하여 20년 가까이 수십 명의 다른 장애인과 단체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배제와 차별일 뿐입니다. 그런 주장을 부모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부모에게 그런 선택을 할 권리를 주었나요?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는 부모들의 현실적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신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립전환 인프라를 구축해서 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먼저 제공한 뒤, 거주자의 안정적인 삶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정책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주택과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주거유지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활용되고 있는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이런 지원주택을 거주 시설에서 탈시설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한다면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는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인식의 저변에도,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장애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정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춰있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부딪히고, 지속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지금의 인터넷 댓글이나 부모들의 주장이 사라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리얼푸드대회를 무산에서 개최한 후 주요 참석자들과 찍은 기념사진



그건 ‘논란’이 아니라 ‘성차별’입니다

- 2020도쿄올림픽을 통해 본 성차별

하주영 | 본지 편집위원, 호림이출판사 대표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진 2020도쿄올림픽이 지난 8월 막을 내렸다. 개막 전부터 일부 국가에서 불참 의사가 나오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지만, 개막을 1년 연기하고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른 끝에 중단이나 취소 없이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나는 특별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번 올림픽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나마 신경이 쓰였던 것도

옆 나라 일본에 세계 각국의 선수와 관계자가 모이는 만큼 혹시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정작 올림픽이 끝난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특정 종목이나 경기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대회 기간 중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양궁 선수의 헤어스타일을 둘러싸고 오간 차별적인 말들이었다.

지난 7월 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산 선수의 숏컷 머리 모양과 출신 지역, 여대 출신이라는 점, SNS에서 사용하는 말투 등을 문제 삼아 그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며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안 선수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거나, 심지어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숏컷 논란’, ‘젠더 갈등’ 등의 제목으로, 마치 안 선수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한 것처럼 앞다투어 보도했다. 올림픽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였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여성의 머리카락이 짧은 것이 그가 페미니스트라는 뜻도 아닐뿐더러, 안 선수가 페미니스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의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이러한 공격을 하나같이 ‘논란’이나 ‘갈등’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명백한 ‘온라인 학대(online abuse)’이라고 규정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자 최고의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에 국내 양궁 사상 최초로 금메달 3개를 거머쥔 안산 선수



기술 강국이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올림픽과 관련한 성차별이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모리 요시로는 공식 석상에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발언한 후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사퇴했다.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의 총괄 책임자인 사사키 히로시 또한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올림픽 개최가 1년 연기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고위 관계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서슴지 않을 만큼 성차별은 일본에서도 뿌리 깊은 셈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올림픽에서의 성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선수와 시민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모리 요시로의 차별적인 발언 이후 일본의 대학생 노조 모모코는 온라인에서 '#DontBeSilent(침묵하지 말라)'라는 이름의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15만 명의 서명을 모았고, 결국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는 여성 체육인 출신의 하시모토 세이코로 교체되었다. 국내에서도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에 맞서 '#여성_숫컷_캠페인'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많은 여성이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와 짧았을 때의 전후 사진을 공유하는가 하면, 안 선수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숫컷으로 자르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선수들도 성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탰다.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은 기존에 입던 비키니 모양의 타이즈 대신 신체 전신을 덮는 '유니타드'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는데, 이는 스포츠계 성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패럴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육상 선수 올리비아 브린은 최근 자국 선수권 대회에서 어느 관계자가 자신의 유니폼 하의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다른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 펜싱 에페 남자 대표팀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선수가 선발된 것에 대한



주일본 핀란드 대사관 직원들의 #DontBeSilent 캠페인과 성평등 지지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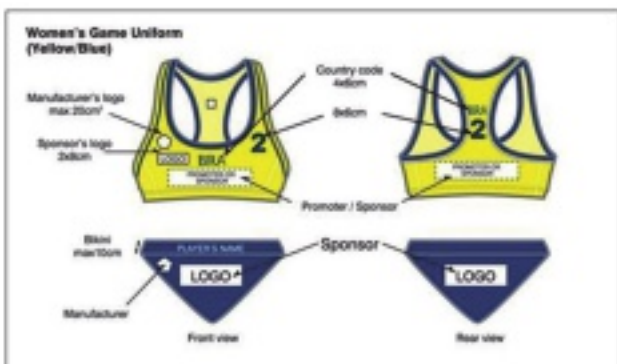
독일 미자 기계체조 대표팀_파올라 쉬퍼 인스타그림 갈무리



미국 펜싱 여자 남자 대표팀. 맨 왼쪽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알덴 하지치. 어브타하즈



유럽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은 노르웨이 선수단. 국제핸드볼연맹은 유니폼 규정 위반으로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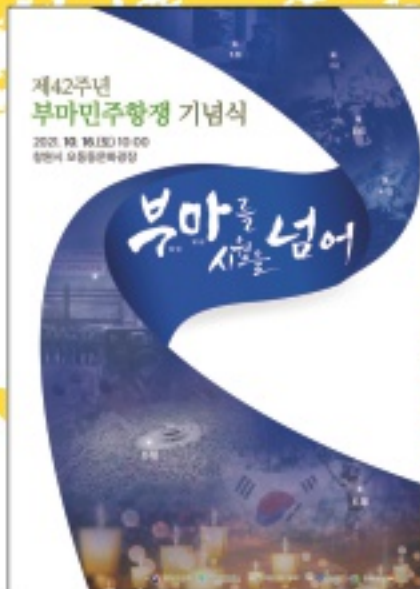


국제핸드볼연맹 비치핸드볼 여성 선수 유니폼 규정

항의의 표시로 분홍색 마스크를 끼고 팀 단체전에 출전했다.

2020도쿄올림픽의 여성 선수 비율은 49%로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IOC 집행위원 가운데 여성은 1/3에 불과하고 이제까지 여성 위원장이 선출된 적은 없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이에 IOC는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세대평 등포럼에서 2024파리올림픽에서 완전한 젠더 평등을 이룰 것,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성평등하고 공정한 묘사를 보장할 것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전 세계 선수와 관계자가 모이고 매 순간 이목이 집중되는 대회인 만큼 앞으로 성평등 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논란(論難)'은 "어긋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라는 뜻이다. 안산 선수의 성별과 머리 모양, 출신 학교 등을 근거로 공격하는 것은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인 주장 같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이다. 올림픽 개막을 몇 개월 앞두고 물러난 모리 요시로와 사사키 히로시의 발언이 단지 '논란거리'가 아니라 성차별인 것처럼 말이다. 시대가 변하면 과학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도 변한다. 방송사 올림픽 중계에서 한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여전사', '태극낭자', '얼음공주' 같은 말들이 이제는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대회에서 보았듯 성평등한 올림픽을 위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올림픽도 계속해서 변해갈 것이다. 우리 언론도 더는 '논란'이나 '갈등' 같은 모호한 표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공격을 공격이라고,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내 양궁 사상 최초로 올림픽 3관왕을 거머쥔 안산 선수에게 찬사를 보낸다. 🇰🇷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10월 16일(토) 오전 10시
창원시 마산오동동문화광장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부마를 넘어, 시월을 넘어'를 주제로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당일 오전 10시 창원시 마산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국가기념식으로 광범한 시민이 나라의 진짜 주인임을 알게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역사,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기리고자 한다.



제30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10월 15일(금) 오후 7시
민주공원 큰방(중극장)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국내 유일의 상, 민주시민상의 제30회 시상식이 10월 15일(금) 오후 7시부터 민주공원 큰방에서 열린다. 30회를 맞아 역대 수상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민주시민상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자 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모시고 진행하며, 제30회 민주시민상 시상식은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민주공원)에서 생중계한다.





부마민주항쟁상황재현문화제

10월 16일(토) 오후 5시
민주공원

일주지 않는 부마민주항쟁의 시간'을 주제로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 생활재현문화제가 10월 16일(토) 오후 5시부터 민주공원에서 열린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상황재현문화제는 민주주의 햇볕 아래, 원형의 민주공원 뽕나무(달팽이길)에 미디어를 활용한 융복합 문화제다.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기려 문을 연 민주공원 개관 기념 행사로 열린 <부마민주항쟁상황재현극> 이후 20여 년 만에 민주공원에서 열리는 문화제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상황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여 시민에게 항쟁의 의미를 알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고자 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국내 민주화운동의 계보를 보여주고 역사적 상황을 파노라마로 재현한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의 현대적 의미를 탐색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데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 소수자, 장애인, 어린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다양한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1 부마아카이브전 <이웃집 투사들>

10월 19일(화) ~ 11월 21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월요일 휴관
민주공원 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2021 부마아카이브전 <이웃집 투사들>도 10월 19일(화)부터 11월 21일(일)까지 민주공원 작은펼쳐보임방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번 전시는 42년 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만화를 중심으로 한다. 곽동효 구술자의 이야기를 전해정 작가가 <스물여덟, 어느 가을밤>으로, 민중식의 구술을 정보영 작가가 <잃어버린 페이지>로, 이병천의 구술을 최해술 작가가 <그 붉은 시월>로, 지경복의 구술을 최승훈 작가가 <나는 A급 지경복입니다>으로 그려냈다.

만화가들의 만화 작품 네 곡지 100여 점과 함께 사진 20여 점, 영상 자료, 구술 자료를 펼쳐 보인다. 만화로 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구술을 통해 개인의 세서한 경험이 어떻게 모여 커다란 사건을 이루는지 볼 수 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공동주최한다.


제30회 민주시민상

제 30 회
민주시민상

제30회 민주시민상 시상식이 10월 15일(금) 민주공원 증극장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하며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민주시민상은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1992년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으로는 유일하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 생태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시상한다. 제30회 민주시민상 수상자는 개인 부문 민중가수 박영순 씨, 단체 부문 신진문화예술행동 홍이다.

박영순 씨는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곳에서 노래로 함께해왔다. 부산 지역 각종 투쟁현장에서 예술 행동으로 헌신하였으며 개인적 참여와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2011년 김진숙 85크레인투쟁과 희망버스 문화제, 2014년 생략노동자 시청 광고탑 농성투쟁 문화제, 세월호 추모예술행동, 2018년 풍산마이크로텍 투쟁 문화제 등을 기획하고 조직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였다. 최근에는 신라대학교 청소년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투쟁 현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진문화예술행동 홍은 2016년 부산지역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청년 예술가들이 만든 단체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예술행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행사 기획, 웹툰 제작, 음반 발매, 웹 드라마 제작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각종 사회 문제에 메시지를 던지며 청년 예술가들의 재치와 기지로 사회 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물론 여러 지역의 현장과 거리를 찾아다니며 활동하고 있다. 갑만동8부두미군세군무기실험실 폐쇄 찬반투표 성사를 위한 부산시청 기다림의 광장,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 현장 등에서 예술행동을 펼쳤다. 부산항 미군 세군실험실의 존재와 위험성을 알리는 티셔츠 제작,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부산 지역 인디뮤지션의 컴필레이션 앨범 [淨化]을 제작하기도 했다. 



▲ 민주시민상 개인부문 박영순
▲ 민주시민상 단체부문 신진문화예술행동 홍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식·시민영상제 민주주의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식·시민영상제》가 '민주주의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민주공원 가리사리마당(민주항쟁기념관 앞마당)에서 6월 10일(목) 오후 7시에 열렸다. 부산지역 민주열사인 고 박종철 열사의 고모 박정애 시인, 고 황보영국 열사의 형 황보시묵 님이 함께 자리했다.

6월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정부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고 고호석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고 김경숙 전 YH무역 노동자를 비롯한 25명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3명에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부산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시민 학살 사실 은폐와 언론을 통제해 독재 정권에 맞섰던 고 김의기 열사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포상이 있었다. 대통령을 대신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 김의기 열사의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우리가 6월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었던 영상공모전 선정작 5편도 시민영상제를 통해 상영했다. <항쟁형제가 항쟁의 현장을 가다>(항쟁형제), <87년 6월 부산을 달군 부산의 장소를 '새롭게 둘러보다'>(손동혁, 전우석), <6월을 듣다, 그리고 기억하다>(김육천), <87년 6월, 부산의 기억들>(현승민, 강민지), <전쟁과 평화>(스튜디오컴퍼니)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게 했다.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식과 시민영상제 선정작 등은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 1 시민영상제 수상자 단체사진
- 2 고 김의기 열사 유족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3 <87년 6월 부산을 달군 부산의 장소를 '새롭게 둘러보다'> 장면

보이지 않는 그물로 연결된 못 생명들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1 - #코로나그램>

장재훈 | 월간 '함께가는 예술인' 편집장

6월민주항쟁 34년 기념 전시는 <민중미술 2021 지구표류기>라는 제목으로 민주공원 잠은필터보임방기화전시실에서 첫 번째 색선 <민중미술가협회전 VI 이인철>(6월 10일 - 7월 25일), 두 번째 색선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1 - #코로나그램>(8월 7일 - 8월 29일)으로 연이어 열렸다. - 편집자 주

'코로나19'는 지난 몇 해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닐까. 코로나와 관련한 이야기는 작가 자신의 일상을 재구성하고 성찰하게 하는 미시적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어찌 조감하기 어려운 거대담론이다. 이 거대 수레바퀴의 크기는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현상은 현재진행중이며, '워드 코로나'를 전망하는 이즈음에도 인류가 맞을 귀결은 미지수이다. 생계와 생명을 위협하는 바위 앞에서 우리는 한 마리 사마귀처럼 앞발을 들고 있는 모양인지 모른다. 현 상황에서선 몰랐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도미노의 연쇄처럼 포진해있다. 인간은 한 발 내딛기 무섭게 무지라는 허방에 빠지고 스러지면서 겨우 이즈음에 다다랐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는 환경과 생태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만이 저희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닦아낼 수 있는, 그나마 가까운 앞의 대상이기 때문일 터, 우리는 지구라는 별을 빌려 살고 있으면서도 인간 종(種) 외의 것을 보듬고 공생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왔다. 공생의식은 인류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어야 했으나, 그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성은 이제라도 생명이 살아가는 다양한 양태, 인위와 자연의 산물들이 하나로 엮여있다는 관계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고민하길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 박재열, Burn Out, 2m 이내 가변설치, 혼합재료 (나무, 나무박자, 풀), 2021

이 삼엄한 경고를 가장 기민하게 느끼는 작가들이 모였다. '코로나'라는 단일 주제는 곧 환경과 기후 변화를 비롯한 우리 문명이 야기한 징벌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고, 비대면과 격리로 대변되는 전에 없던 사회적 연대 감수성의 휘발 상황에 대한 철학적 깨달음과 뉘우침, 종교적 비손과 절망 등으로 많은 분화를 이루어냈다. 작가들은 이를 개인의 서사로 치환하여 표현하기도 하였고, 사회 운동의 차원으로 조감 가능한 형태로 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자의 경우 왜소하고 과련화된 형태로 함몰된 개인이 등장하는 법은 없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확보하고자 했던 사회적 의미들은 성긴 그물코로 빠져나가지 않고 맞춤형에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그렇게 스물한 점의 작품들은 고통과 피로의 나열이 아니라, 위로의 언어, 슬기로운 대처와 극복, 희망을 찾으려는 정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몇 작품을 훑아보며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박재열 작가의 작품 「Bum Out」은 압도적인 어둠의 세계로 시선을 갖는다. 작가는 새까맣게 태운 사과를 탁자 위에 얹어 놓았다. 우리는 이 사과가 지상에 남은 마지막 생명의 재유임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다. 계단을 연상케 하듯 희디흰 인위의 색을 뒤집어쓰고 있는 탁자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인다. 저 감게 탄 사과도 언젠간 홍옥처럼 겉은 아주 붉고, 속은 크림빛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담과 이브가 나눠 먹은 선악과처럼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원죄를 품은 것이었을 줄은 그때 차마 몰랐으리라.

전기학 작가의 작품 「자가격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을 던진다. 하루 감염자 네 자릿수가 수개월째 줄을 잇는 오늘이지만, 그것이 나의 몫, 내 가족의 일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연할 수 있을까? 자가격리자

▼ 전기학 「자가격리」, 182×144cm (4점 1세트)_민남제 혼합재료_2021



의 심리를 병풍 양식의 연작으로 표현한 작품에서 인물은 팬티만 걸친 몸통 어리를 저 홀로 꺾어앉았다가 목을 조르기도 한다. 음성이라는 잔혹한 검증의 시간이 끝나고야 사회는 그를 겨우 성원으로 인정해준다. 그마저도 감염되기 전까지라는 한정된 인정이다. 작가는 가혹이나 각박한 자본주의와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 속에서 더욱 깊어진 단절과 소외를 표현하고 있었다.

송주용 작가의 「동행」에는 앞서 가는 자와 뒤를 따르는 노인이 등장한다. 그의 작품에서 필자는 타자를 읽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앞과 뒤가 생겨나고, 이를 좁히었다 벌리면서 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다. 사내에겐 아내가 있기에 지계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으며, 뒤에 가는 노인은 앞서 가는 자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뒷짐으로 보자기를 들었다. 자기, 자신, 자아 같은 주체는

'나의 상대로서의 너'인 타자를 통해 객체화를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경쟁이라는 타자와의 관계성 인식이 우세하여 좀처럼 인정을 애폴려 한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며, 너는 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인식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주체인 자기존재 최후의 나의 절대 안녕만을 앞세우지 않는 경지를 말한다.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에 함몰된 자기가 이루고 있는 집단과 계층은 중심의 주체와 주변의 타자라는 선명한 이항대립을 낳는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작가의 작품이 수용자에게 남기는 잔잔한 파문은 타자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이자 대상이지만, 동시에 종속이나 대상화로 함부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저어 또한 하나의 주체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한 말로 예술가는 세상의 틈을 보는 자라고 한다. 그들은 낯선 눈으로 바라보고 낯선 말로 세상을 그려낼 줄 안다. 그럼으로 예술가는 틈 사이를 열기설기 엮어 그물을 짜는 자다. 그들이 세상에 던진 그물 사이로 우리는 뒤미처 보지 못했던, 청작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자아의 조각을 맞추거나 세계의 형(形)을 더듬어 볼 수 있다. 과연 조악한 세계의 끝 너머에 가리어 있던 진상(眞像)이란, 예술작품으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편린을 통해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색채와 점선면(點線面)이라는 불완전한 질료로 구축된 이들의 작품을 마주하며 생각에 잠긴다.

〈식민지구 2021 - #코로나그림〉에 참여한 작가들은 이 암울한 현실의 여러 모순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때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양면술을 보였다. 그렇게 내걸거나 설치된 작품들은 낱낱이 개성적이고 특수하지만, 보는 이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안겨다주었다. 이 공감의 정체를 굳이 더듬어 풀어쓰자면, 생명과 생태, 마음과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로 연결되어 있음의 재인식이 아닐까. 그것이어말로 식민지구(colony + earth)를 덮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건강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리라. **1**



▲ 송주용_동행_185×185cm_나무에 유채_2021

기록의 힘: 체계적인 기록 관리의 필요성

박지원 | 민주공권 기록물관리

“ 기록 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의 목적은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미래의 이용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현대기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셸렌버그(Theodore R. Schellenberg)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이러한 경험의 기억을 기록으로 고정시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기록에 대한 역사는 글자의 탄생과 함께 이어져 왔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고도로 발전된 인쇄술, 컴퓨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기록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이른바 과잉 기록 시대의 출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치가 낮은 기록물을 함께 보존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저하 문제, 보존서고의 만고 상태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기록관리학이다. 기록관리학은 비교적 최근의 학문으로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전산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된 복합 학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기록은 무엇이고 기록 관리는 무엇일까? 기록관리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한 '기록학 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기록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미분류된 신규 기증 서류

를 말하며,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

기록 관리는 기록의 생산·유지·활용·처분의 체계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 분야를 말하며, 기록을 적절하게 생산 및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적 가치나



신규 기증 서류 분류 및 목록화·정리 작업 중인 박정영 선생과 국가근로장학생들



정리작업 완료 후 임시 보관 중인 신규 기증 서류

영구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쉽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 즉, 기록 관리란 말 그대로 기록의 전반적인 영역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공원은 약 69,872점의 미술품과 사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manuscript repository, collecting archives)로 볼 수 있다.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자료실과 수장고 등이 있지만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수량에 비해 그 공간이 협소하며,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관리가 부실한 상태이다. 자료실 내 모빌렉 7기는 이미 기록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꾸준히 들어오는 기증 서류들을 분류하지 못한 채, 기증된 상태 그대로 모퉁이에 방치되기도 하였다.

모든 기록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황변화와 훼손의 위험에 놓이게 되며 유실의 위험도 크다. 사료는 학술, 교육자료, 홍보 등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사료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인 기록물을 잘 관리해서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할 수 있다. 시민의 기억과 기록들이 곧 지역 사회의 역사이자 문화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공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기록 또한 함께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기억과 기록이 모여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확립하고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록 관리가 수행된다면

기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억이 기록으로, 그리고 기록에서 기념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첫 입사 그리고 첫 사업, 누구나 처음은 있다!

필자의 인생 첫 직장이 된 민주공원. 주변에서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었다고 한다. 대학원생 시절, 연구 학기를 앞두고 용돈벌이 삼아 수락해버린 연구용역 작업이 바로 이 민주공원의 사료관리였으니 말이다. 6

월항쟁 관련 사료들의 기초 목록화 및 DB화 그리고 라벨링 정리 작업까지 난생 처음으로 전공을 살려 한 작업이었다. 사료실 한 편에 자리 잡은 노란색 클리어 파일을 민주공원에 입사해서 다시 볼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경험을 토대로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도 민주공원 사료를 바탕으로 한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구축 방안이었다. 어쩌다보니 나름 민주공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다.

민주공원에 입사한 지 벌써 반년하고 두 달이 지났다. 두꺼운 패딩에서 가벼운 반팔티 차림으로 옷차림이 바뀌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었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찾아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따위 벗어던지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었다. 애플워치마저 등산으로 인지할 것만 같은 이 출근길에 마스크까지 써야 한다니 기억만으로도 벌써 인종에 땀이 흥건하다. 그런데 왜일까? 유난히도 덥고 비가 잦은 고약한 날씨 덕에 불쾌지수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지만 출근이 기대되는 아이러니한 여름이었다. 생애 첫 사업인 사료관리사업의 올해 목표는 신규 기증 사료 분류·목록화·정리 작업으로 그동안 계속 쌓아만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신규 기증 사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에 있을 사료평가위원회를 대비하여 기증 사료를 분류하고 제목, 생산자, 생산연도, 주제어 등을 추출한 기초 목록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진 않지만, 수량이 방대하여 여름방학 동안 교외 국가근로장학생들의 도움을 얻었다. 학생들과 처음으로 만났던 날, 사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웠다. 나이 차도 많지 않았고 관리자 역할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리숙했다. 그러나 걱정은 아주 잠시뿐. 열정 가득, 하이 텐션 친구들 덕분에 웃음이 마를 일이 없었다.

연구용역자로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같이 일해준 박정열 선생님의 지휘 아래에서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자'를 열심히 실천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 오래된 사료의 특성상 먼지가 많았는데 작업 공간이 환기가 어려워져서 모두가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묵묵히 작업해 준 덕분에 당초에 생각했던 과업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고, 나중에 있을 사료평가위원회의 자료

로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가치 선별에 따른 사료 평가는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며, 그 기초가 되는 분류 및 목록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필자도 관리자 역할이 처음이었고, 학생들도 사료를 만지는 것이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서툴고 실수투성이였지만, 누구나 처음은 존재한다. 현재의 경험을 거름 삼아 내년, 내후년에 더 성장해 나갈 일종의 빈틈을 만들어놓는 것은 썩 나쁘지 않지 않는가? 학생들이 과거 필자가 연구용역자로서 수행했던 작업을 하고 있고, 필자가 그 담당자가 된 기분은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다. 필자가 민주공원의 직원이 될 줄 모르고 민주공원에서 단기 연구용역자로 일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 작업이 훗날 본인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부산 시민의 기억저장소: 민주공원 부속건물 사료관

민주공원은 2020년 사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 9월 14일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이후 약 1년 정도 실시 설계에 들어가며 2024년에 사료관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사료관 준비단, 외부자문위원회 구성, 학술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여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료관 건립 및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로는 소장 사료 전수 조사를 통해 사료분류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주로 수집 또는 기증으로 이뤄진 민주공원의 사료 특성상 문헌분류와 달리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공원 맞춤형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료분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을 세분화해서 각각에 알맞은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사료관인 만큼 사료 보존 및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민주공원 사료관은 민주공원만의 사료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 시민들의 기억을 담아내는 공동의 기억저장소이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저장하여 공유하는 사료관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

민주공원에서 보낸 여름 방학

김예선 | 편집장, 민주공원 홍보

여름, 겨울 방학을 맞아 민주공원을 찾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들로 올해 하계에는 권나경, 김유정, 박재민, 이민재, 지은지, 최윤서 6명의 장학생이 근무했습니다. 민주공원에서 소창 사료 목록화 작업을 보조하고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영상 제작을 맡았습니다. 장학생들에게 민주공원에서 보낸 여름 방학을 물어봤습니다.





민주공원에 하게 국가근로장학생을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권나경: 학교 내부 근로장학생만 하다가 처음 외부근로장학생을 신청했는데 가족들과 자주 오던 곳이라 반가웠어요.

최은서: 외부 근로지를 고르던 중 '민주공원을' 보고 평소 접하고 배우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했어요.

민주공원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박재민: 많이 딱딱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 모두가 친근해 보였어요. '답관료제' 느낌? 젊은 직원들이 더 많아서 놀랐어요.

이민재: 어릴 때 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일하는 동안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권나경: 근로장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옥상에 자주 올라갔어요. 다 같이 큰 구름을 본적이 있는데 사진도 찍고 아이패드도 함께 그림 그렸던 날이 생각나요.

최은서: 근로장학생들 몇 명이 '청춘산악회'를 만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함께 등산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이민재: 직원들이 아이들로 데워한 '데모크라시 걸즈' 영상 촬영할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힘든 일도 있었나요?

권나경: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이다 보니 먼지가 많아서 힘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늘 쓰고 있었는데 먼지도 같이 막았어요.

최은서: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관심이 가는 사료가 보이면 읽어보기도 하고 검색해보면서 새로운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민재: 체감온도 38도인 날 야외촬영을 했을 때 '뽕구이'가 될 뻔했던 거요...

민주공원에서 일하며 첫인상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지은지: 타 기관과 다르게 수직적인 분위기가 아닌 게 신기했어요.

박재민: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는데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권나경: 처음 왔을 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과 '민주공원 직원들이 있어서 한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알려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근로했던 어떤 곳보다도 직원들이 친절하고 근로장학생들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



사진 위에서부터

- 민주공원 소장 사료 목록화 작업
-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영상 촬영
- 쉬는 시간 모습(정말..기)
- 청춘산악회 멤버들의 출근룩

민주주의를 외치다 미얀마 in 부산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지난 몇 달 간 미얀마 국민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치며 온몸으로 군부의 폭력에 맞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미얀마 군부의 엄중한 책임을 묻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에 많은 연대를 보내고 있다. 부산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모여 '미얀마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웍'을 결성했다. 매주 일요일 부산역 앞 광장에서 연대 시위를 펼치고 온라인을 통해 활동도 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미얀마 민중의 처절한 함성.


고국의 소식에 분노하며 지원군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재부산 미얀마인과 연대하는 부산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펼쳐보이는 거리 순회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전 <민주주의를 외치다 미얀마 in 부산>으로 부산 시청, 민주공원, 부산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으로 지면에 이름과 얼굴을 밝힐 수 없는 부산 거주 미얀마인들은 지금을 '미래의 자유를 위한 오늘'의 싸움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뉴스에 미얀마 소식이 안 나온다고 해도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88년 8월 8일 일어난 반군부 민중항쟁 '8888항쟁' 이후 새로운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고, 민주인사를 가택연금하거나 사형까지 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행했다. 미얀마 청년들이 이번 시민불복종 운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8888항쟁'을 겪은 부모세대는 응원과 동시에 걱정을 한다고 한다. 군부에 또다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마음과 군부 정권이 지속된다면 자식들이 군부 정권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미얀마 시민불복종 운동은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얀마 민중이 성공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게 되면 지구상의 독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 부산시민과 국제 사회의 모든 분께 감사하라며 계속해서 함께해주길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민의 자부심’

신심범 | 국제신문 기자



지난 추석에 부산시민공원을 찾았다. 하야리아 잔디 광장은 한가위를 즐기러 나들이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을 뒹굴며 공놀이를 했다. 돛자리를 깔고 앉은 어른들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그간의 인생살이를 늘어놓으며 웃고 떠들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부산시민공원에서 발견된 기름 오염이 떠올라 조바심이 나다가도, 가족이 서로에게 주는 행복감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화목함을 느꼈다. 이 양가의 감정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기자에게 심어준 것이다. 그들은 기자의 보도가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덕분에 내 기사가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걸까 여러 차례 곱씹어왔다.

고민 끝에 기자가 내린 결론은, 그들은 부산시민공원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우연한 계기로 이곳에 오염이 남아 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출근길이 부산시민공원 북문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부지를 경유하는지라. 매일같이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과 노동자들을 봤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사장에 다니는 사람 못 본 지가 꽤 된 것 같다는 자각이 들었다. 현장 관계자에게 요새는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땅에서 기름이 나와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려 처음으로 전화를 건 부산진구 공무원의 대답을 잊지 못한다. “시공사가 공사하다 기름을 흘린 걸 수도 있죠.” 기자들의 호들갑스러운 성질을 잘 안다는 듯, 그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괜히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이곳 토양을 정밀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공장용 부지라도 쓸 수 없는 수준의 기름 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를 맡은 신라대 토양분석센터에서는 10여 년 전 벌어진 토양정화작업 때 제거되지 못한 기름 오염이 여전히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공원의 다른 구역도 오염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대단히 부실했다. 땅은 일철 파지 않고, 대기질과 수질, 나무의 생육 상태를 조사해 기름 오염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왜 땅을 파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내놓은 답변은 이랬다. “아무 데나 뚫는다고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다. 추가 조사해봤자 오염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지 않느냐, 멀쩡한 이곳을 문제투성이 공간처럼 묘사한 기자에게 손해배상이라도 걸고 싶다.”

부산시는 시민공원을 허남식 전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여기는 듯했다. 잔류 오염 검사가 현 박형준 시장과 당적이 같은 허 전 시장의 치적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취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한 주체는 허 전 시장이 아니라 부산시민이란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돌아가신 외할머니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스무살 무렵에 광복을 맞이한 할머니는 생전에 '조선 늙들' 욕을 많이도 하셨다.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넋더리였다.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나. 자존심 구기는 일도 밥 먹고 살려고 닥치는 대로 하지 않았나... 지나간 세월을 그렇게나마 미워했다.

할머니의 회상 속에는 늘 미군이 등장했다. 하야리아 부대에서 입초를 선 미군에게 동네 꼬마들이 다가와 "기브 미 쏘프레뜨" 하며 손을 내밀면, 그들은 씩 웃으며 미리 준비한 초콜릿을 꼬마들 수만큼 나눠줬다는 '바로 그' 이야기다. 부대 주변에 형성된 판자촌, 양공주가 일하는 기지촌 '범진동 300번지' 등도 빼놓지 않고 썼었다. 하야리아 부대는 할머니의 숨겨둔 상처가 억지로 피를 터뜨리게 하는 공간이었다. 돌로 쪼개져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된 나라, 삼천리를 민족의 피로 물들인 결과로서 찾아온 절대적 가난, 그 끔찍한 시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오랜 세월 주동해 온 미군 기지, 쳐다보기도 싫은 공간이었을 터다. 그랬던 하야리아 부대는 2014년 부산시민공원이 됐다. 1990년대부터 우리 땅 되찾기 운동을 벌여온 부산 시민의 성취였다. 미군이 흘린 기름을 씻어내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 할머니에게 하야리아 부대가 사라지고 시민공원이 생긴 소감을 묻진 못 했다. 아마도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을 것 같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옛 시절이 청산됐다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 할머니를 떠올리며, 기자는 부산시민공원 잔류 기름 오염 보도를 낼 때마다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라고 표현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이들이라면 기자의 할머니와 비슷한 감격을 지니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곳은 100년간 일제와 미군이 점유해온 땅을 되찾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공지가 담긴 땅이지 않는가. 시민의 건

강과 자긍심이라는 실질적·상징적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이런 곳에 미군이 흘린 기름이 아직도 남아있어선 안 된다.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다. 부산시민공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부디 부산시가 깨달아주길 기원한다. 📌



사진 _부산관광포털 벵치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설계공모 발표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건립 건축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아익(조정훈)의 작품으로 작품명은 '임을 위한 언덕입니다'. 과거의 민주주의와 현대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기억의 공간을 지향합니다. 민주공원은 부속건물을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부문운동, 시민사회단체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민주공원 내 보관 중인 민주화 관련 미술품과 사료의 체계적 정리·보존 기능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10월 민주달력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수탁·부설기관의 소식과 회원 혜택 알림, 민주주의 관련 날짜를 안내하는 민주달력 10월 달력이 나왔습니다. 부마민주항쟁 42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30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부마민주항쟁상환재현문화제, 부마이카이브전 <이웃집 투사들> 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예술 동아리를 대상으로 2021 민주공원 생활예술문화축전 참여 동아리도 모집합니다. 22회 전국 청소년예술토론회마당은 10월 23일(토)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열리며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진행합니다. 10월 30일(토)에는 우수작품초청기획공연도 있습니다. 10·4남북공동선언 발표와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입니다. 다양한 소식과 민주주의 관련 소식을 담은 민주달력은 민주공원 SN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보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산민주역사길 영상

영상으로 부산 곳곳의 민주주의 현장과 흔적을 찾아나서는 <부산민주역사길>을 마련했습니다! 민주공원과 함께 <부산민주역사길>을 둘러보며 인권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열사들과 시민들이 활동한 장소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진구·동구 첫 번째 길>로 시작하여 <부산진구·동구 두 번째 길>, <중구·영도구 첫 번째 길>, <중구·영도구 두 번째 길>, <중구·영도구 세 번째 길>, <서구·사하구 길>, <금정구·동래구 길> 순서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하계 한국청학재단 근로장학생으로 민주공원에서 근무한 동서대학교 이인재 학생이 촬영과 제작을 도맡았으며 내레이션은 민주공원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아는 장소에 부산 민주주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니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4 · 19 다큐 공개

4 · 19혁명 61주년을 맞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보존처가 협력하여 제작한 4 · 19혁명 기념 다큐멘터리 <4월 19일이 그대에게>를 민주공원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앞으로의 기념을 고민하며 1960년 4월 19일, 4 · 19혁명에 참여한 당시 청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좌천동, 범내골, 서면 일대 등 시위 현장의 지금 모습을 담았습니다. 60여 년 전의 일이라 당시 시위 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4 · 19혁명 참여자들의 고향화로 인터뷰가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기억 속 또렷하게 남아 있는 그날의 모습, 부산 곳곳에 남아 있는 4 · 19혁명의 흔적을 모아 짧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4 · 19혁명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생화 단지 들꽃자드락 조성

민주공원 곳곳에는 많은 들꽃과 나무가 있습니다. 생태교육장인 동시에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 입구에서부터 쉬운길 방면으로 새로운 야생화 단지를 가꾸고 있습니다. '들꽃자드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상지연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회장 허동윤)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한 기부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민주공원의 들꽃자드락은 이름 모를 들꽃처럼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이끌어 온 숭한 민초들의 어엿함을 기리고자 합니다.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공원총판

2021년 마지막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공원출판>이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마지막 예술놀이터는 민주공원공헌장상주단체 Dance Project EGERO와 함께했습니다. 현대무용뿐만 아니라 한국무용, 연희, 발레,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장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공원출판>을 통해 관객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즐거움을 느껴셨기를 바랍니다.



민주할매, 평화할배 장승 세우기

민주공원 입구에 있는 잔디밭은 '민족통일대장부'와 '민주평화여장부' 장승이 서 있는 장승터입니다. 두 장승이 나란히 서서 비민주적이고 거래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온갖 삿된 것들로부터 민주공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초여름부터 손재주 좋은 민주공원의 시설관리 담당 박병목 직원이 새로운 장승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나무에 대패질을 하고 조금씩 깎아내었습니다.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입구에 세운 새 장승의 이름은 '민주할매'와 '평화할배'입니다. 부산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민주공원에서 '민주 부산'을 지켜주고 민주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반겨줄 장승과 함께 인증샷 찍기 어떤가요? 📍



'우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민주세상을 만듭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 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간 소식지 '민주공원'과 격주 화요일 뉴스레터를 정기 발송해드리며 알림 문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시는 분께 감사증서와 반려식물, 그림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민주공원 홈페이지(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전화 가입 또는 관련 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전 화 : 051-790-7473

▶ 이메일 : regisseur@demopark.or.kr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무실기관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알림방에서 알려드리는 전시, 공연, 교육 등 행사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시 변경, 비대면 전환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는 즉시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행사 참여 전 운영 상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의 전망>

주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일시: 10월 14일(목) 13:00 ~ 18:00

장소: 민주공원 소극장(중 화상회의 병행)

기조발제	기후위기와 탄소경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발표	발표 1: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장점과 과제
제2발표	발표 2: 위기의 시대, 노동의 전망과 대안
제3발표	발표 3: 복합위기 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삶과 현실
제4발표	발표 4: 복합위기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문의 www.narak.kr | ☎ 051) 463-2240

<필레북>

'필레북'은 책,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책을 펼친다는 뜻도 있고, 독서의 꽃도 펼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안수현 선생님과 프랑스 철학자인 들뢰즈의 사상으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사공일 선생님을 모시고 독서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개의 강의를 함께 들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수강인원은 15명 제한입니다.

※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책을 지참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필레-북]
 나락한알의 독서 강좌
 필레북, 사람, 책

나락한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강의 내용

<p>1. 안수현 20일(목) 13:00 2022년 10월 20일 (목) 13:00 ~ 18:00 051) 463-2240, 490</p>	<p>2. 사공일 20일(목) 13:00 2022년 10월 20일 (목) 13:00 ~ 18:00 051) 463-2240, 490</p>
--	--

강의인원
 민주시민교육원 L100호
 부산시 동구 동서대로 297
 신청방문 4명

강의인원
 L100호 L100호
 051) 463-2240

숲속놀이터 – 데모걸즈

10월 14일(목) 오후 5시 | 민주공원 유튜브채널

민주공원에서 숲속놀이터 공연이 펼쳐집니다. 민주공원을 지키는 장승터, 교통약자를 위한 쉬운길, 민주열사를 기리는 추모의 공간 넉기림마당,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민주항쟁기념관 등 민주공원의 아름다운 공간을 다니며 노래에 맞춰 추는 율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직원으로 구성된 율동패 나대자가 데모걸즈(데모크라시 걸즈)로 데뷔하여 우리나라의 노래 <우리 하나되어> 노래에 맞추어 추는 율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못 취도 열심히 춤춥니다. 시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활예술문화축전

2021 민주공원 생활예술문화축전을 함께 만들어갈 참여 동아리(개인/단체)를 모집합니다. **11월 6일(토)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여는 생활예술문화축전은 음악(악밴드, 버스킹 등), 연극, 댄스(무용), 퍼포먼스, 전통예술, 미술, 태권도, 치어리딩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진행하며 장르 제한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개인 또는 동아리의 다채로운 공연을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민주공원 체험학습

〈2021년 부산과 함께하는 민주공원 체험학습〉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민주체험 - 민주공원 투어〉와 〈생태체험 - 민주랑 숲이랑〉을 다시 시작합니다. 민주공원 홈페이지 체험학습 신청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주체험 - 민주공원 투어

공원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민주항쟁기념관을 돌아보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체험학습프로그램

◆ 생태체험 - 민주랑 숲이랑

자연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의 숲을 걸어보며 다양한 수목화를 살펴보고 생태민주주의를 느껴보는 체험학습프로그램



민주공원공연장상주단체 Dance Project EGERO 〈비빔〉

12월 18(토) ~ 19일(일) |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

비건올(비) 歐(살필비) 林(수를 땀), Dance Project EGERO의 기획 공연 〈비빔(比肥林)〉이 12월 18일(토)과 19일(일) 민주공원에서 열립니다. 민주공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인 Dance Project EGERO는 매년 〈비빔〉을 통해 다른 무용팀과의 교류, 협업을 통해 서로 견주어 살찌우는 무리가 되어 지역 내 신선한 콜라베이션과 네트워킹을 구축해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비빔을 보여줄지, 12월을 기다려주세요!



우수작품초청기획공연

10월 30일(토) 오후 4시 | 민주공원 큰방(중극장)

민주화운동기획공연

11월 20일(토), 11월 27일(토), 12월 4일(토)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




제30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2021. 10. 15. ^리 오후 7:30
민주공원 큰방(중극장)

제30회 민주시민상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시상식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
온라인 생중계 **LIVE**

 **유튜브 채널 민주공원**
www.youtube.com/민주공원



—
문의

051.790.7472



주최·주관 |  **경북혁신창업생태사업체**

후원 | **BNK** 금융그룹